

일본의 전자산업과 아키하바라



김 양 평 역
일본 이야기

일본의 지방과 지명 중에도 귀에 익은 곳이 몇 군데 있다. 수도 도쿄는 물론 오사카, 교토, 홋카이도 등이 그렇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특정 분야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명이 널리 알려진 곳이 있다. 일본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도 ‘아키하바라’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도쿄에 있는 ‘아키하바라’가 유명한 이유는 그냥 관광지가 아니라 지금의 일본이 있게 만든 전자산업의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나라에 “청계천에 가서 가게 몇 군데만 들르면 미사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아키하바라가 그런 곳이었다.

아키하바라의 출발점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만들어진 암시장이다. 패전 직후 라디오 부품을 파는 노점들이 간다 일대로 몰려들었는데 1949년 연합군총사령부(GHQ)의 노점 정리령으로 이들이 아키하바라역 고가 아래로 옮겼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전기 상점들과 함께 규모가 커지면서 전자상가가만 들어섰고, 라디오를 직접 조립하던 시절이었

으므로 부품을 구하려는 기술자와 학생들이 아키하바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본이 고도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아키하바라는 일본 가전의 쇼윈도로 변모했다. 1950년대 후반, 일본에는 흑백 TV·세탁기·냉장고가 ‘3종의 신기(神器)’로 불리며 가정

에 보급되었고 1960년대 후반에는 컬러TV·에어컨·자동차가 ‘3C’로 뒤를 이었다. 이 시절에는 혼수 가전을 장만하기 위해 아키하바라를 찾는 신혼부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1979년 소니의 워크맨이 등장하고 일본의 가전이 전 세계 시장을 점령하던 1980년대 아키하바라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가’가 되었다. PC가 등장한 이후에도 그 명성은 이어졌다. 한국에 아키하바라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시점은 아마도 1980년대 후반일 것이다. 1980년대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많은 여행객이 아키하바라를 방문해 카메라와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을 직접 구입해 오면서 일본 관광여행의 필수 코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키하바라의 명성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야마다전기(ヤマダ電機)’와 같은 교외 대형 양판점의 등장과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으로 인해 가전 유통 시장이 빠르게 변했고, 일본의 전자

기업들은 한국, 대만,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산요, 샤프, 도시바와 같은 대표 전자기업들이 크게 흔들렸고 주목받던 소니 역시 2014년 PC 사업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메이드 인 재팬’ 가전의 일부가 외국 기업에 매각되었다.

이렇게 일본 가전사업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유통 환경이 달라지면서 아키하바라도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거리를 대표하던 전자 부품 상점들이 간판을 내리면서 빈자리를 채운 것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피규어 상점 그리고 메이드 카페였다. 그렇게 아키하바라는 전자제품의 거리를 넘어, 지금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오타쿠’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아키하바라는 이제 외국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기계를 뜯어보고 조립하던 마니아들의 관심이 PC와 게임으로, 다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로 옮겨갔을 뿐 시대에 따라 이 거리를 찾는 사람들과 그들이 몰두하는 대상이 달라진 것이다.

아키하바라의 변화는 일본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이제 시작



기지 수집
나 유 리
(금융부)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어디로 갈까. 한 번 외부로 빠져나간 정보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추적하기란 쉽지 않다. 여러 경로를 거쳐 불법 거래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바라보며 우려스러운 대목도 여기에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들은 보안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입장도 내놓는다. 그러나 고객이 궁금한 것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흘러갔고, 앞으로 어

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은 피해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름과 연락처, 금융거래 관련 정보 등이 범죄 조직에 넘어가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문제는 피해가 뒤늦게 발생했을 때다.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과거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여러 경로에서 유출된 정보가 뒤섞여 유통되는 상황에서 피해 원인과 책임을 가려내는 쉽지 않다.

더욱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금융거래를 잠금할 수는 있지만, 이미 외부로 유출된 이름과 연락처 등을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은행의 보

안망이 뚫린 대가는 고객이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정작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은행은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치고, 고객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2차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은행권은 매년 정보보호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모의해킹과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사고가 반복된다면 보안투자의 실효성을 되짚어봐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유출 규모 파악에 그치지 않고 2차 피해 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은 개인정보도 함께 맡긴다. 은행이 지켜야 할 것은 계좌에 들어있는 돈만이 아니다. 고객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역시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책임이다. 은행의 사고는 하루면 끝날지 몰라도, 유출된 개인정보가 고객을 위협하는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yul11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1일 (음 9월 1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무엇을 해도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60년생 문제가 쌓이게 됩니다. 72년생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마세요. 84년생 연애를 할 때는 심사 숙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9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중하세요. 61년생 욕망을 조금만 더 참으세요. 73년생 이 달 말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5년생 친구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50년생 객지에서 친구를 만나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62년생 원대한 소원이라도 성사될 수 있습니다. 74년생 금전관계로 피곤합니다. 86년생 너무나 좋은 기운이 귀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51년생 늦바람이 더 무섭습니다. 63년생 새로운 인연자가 생기어 사랑운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75년생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87년생 정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52년생 지금 당장의 일반 신경쓰는 게 좋습니다. 64년생 소하기관쪽에 질병을 유의하세요. 7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아량과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88년생 이상형을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53년생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 받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밀고 나가세요. 77년생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9년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세요.



54년생 여행운과 국외로 나갈 운이 많습니다. 66년생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세요. 78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90년생 내찍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55년생 자신을 믿고 망설임 없이 행동하세요. 67년생 지나친 생각은 금물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79년생 애정운은 하락세입니다. 91년생 지긋지긋하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옵니다.



56년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68년생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릴 것입니다. 80년생 행운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92년생 변화와 이동수가 많아 바쁜 한달을 보낼 것입니다.



57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69년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81년생 금전운은 지출이 많으니 관리에 신경 쓰세요. 93년생 친절한 전화 한통화가 애인 사이를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58년생 드디어 당신의 계절이 왔습니다. 70년생 혼자라고 느껴져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82년생 언제나처럼 주변에 활기를 넣어주세요. 94년생 주변 사람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59년생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71년생 모든 모임에는 꼭 참석하세요. 83년생 동쪽에서 새 귀인을 만나며, 목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95년생 금전운이 길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삼두일족매

맹금류로서 용맹하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수리의 대표 명사로서 독수리를 떠올리지만 의외로 독수리는 수리 종류로서 그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민속적으로 독수리보다는 매가 더 친숙하다. 독수리와는 아니지만 매과에 속하는 중 맹금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매를 사냥에 이용하였다. 조선의 태종도 매사냥을 즐겼으며 그보다 더 앞선 신라 시대 때의 진평왕 역시 매사냥을 즐겼다는 기록도 삼국사기에 보인다. 보통 삼재가 들어오면 매 그림으로 부적을 써서 삼재의 액운을 막고자 하였는데, 부적에 그려진 매 그림을 보자면 머리가 셋이고 발이 하나인 삼두일족매(三頭一足鷹)가 그려진 삼재부적(三災符籍)이 그것이다.

더 강한 맹금류인 독수리보다 매가 재앙을 막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늘의 제왕은 단연코 독수리를 떠올리지만 의외로 단순히 힘이 세다 해서 무조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생각이다. 사실 크기와 힘 면에서는 매가 독수리보다는 한 수 아래이지만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속도와 민첩함에 있다. 특히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수리는 날개를 펼치면 사람 키보다 훨씬 넓은 데다가 발톱도 굵고 부리도 엄청 강해서 높은 하늘을 천천히 돌면서 넓은 지역을 한눈에 살피는 모습은 진정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매는 몸집은 독수리보다 훨씬 작지만, 속도만큼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한다. 특히 사냥의 고수로 알려진 송골매의 경우, 먹이를 향해 급강하할 때는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를 낸다고 알려져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는 말까지 있다. 게다가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순으로 방향을 바꾸고 공중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노리는 능력이 대단하여 매는 빠른 판단과 민첩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17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